

“응답하라, 달빛내륙철도” 광주·대구 국회의원들 사상 첫 맞손

16명 공동 기자회견 “영호남 요구 정부 응답 할 때” “4회 연속 미반영 사업 유일...20여년간 희망고문”

광주와 대구 국회의원들이 11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지역 국회의원 16명은 1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호남 대통령 철도이자 국가균형발전 대표 노선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대한 여야와 영호남 시·도민의 요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광주·대구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송갑석

위원장을 비롯해 이병훈, 양항자, 윤영덕, 조오섭, 이형석, 이용빈, 민형배 의원 등 광주지역 8명 국회의원과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김용판, 홍석준, 윤재욱, 양금희, 김승수, 강대식, 김상훈 의원 등 대구지역 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1~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4회 연속 사실상 미반영 사업인 추가검토사업에 머무른 철도는 달빛내륙철도가 유일하다”며 “경제성 충족이 불가능한 지방의 현실은 무시하고 필요성의 여지만 남겨놓으며 20여

년간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핵심적인 정책목표는 ‘주요거점 도시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과 국가순환철도망 구축이다’며 “영호남 동서연결을 외면하고 수도권을 향한 남북축 중심의 계획만 반영되어서는 국가최저기준 철도망의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지방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철도의 선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달빛내륙철도는 광주, 대구 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까지 연결된 지역산업이 연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남부지역 광역경제권



대구·광주지역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광주달빛내륙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활성화의 잠재력이 높은 노선이다”고 강조했다.
송갑석 시장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현정사상 최초로 광주와 대구 국

회원이 손을 맞잡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도 깊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와 대구가 함께 뛰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비전을 찾기 위한 도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기자회견의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나 돌아갈래’ 홍준표 “복당 막는 건 정치적 도의 아냐”

“복당 청문회 마련하면 당당히 나갈 것”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11일 국민 의힘 지도부를 향해 지금은 자당 출신 대통령을 구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와도 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자신의 복당을 재촉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의힘 지지층 65%가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고, 당권 주자로 나선 10여 명 중 한 명 빼고는 모두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일부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정당 가입의 자유를 막는 것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김기현 직무대행께서 복당 청문회라도 마련해 주면 당당히 나가 그간의 일부 오해를 설명할 용의도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홍 의원은 이어 “우리 당 출신 두 대통령을 정치 수사로 구속한 사람(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도 애걸하고, 다른 당 대표인 안철수와도 합당을 추진하는 마당에 같은 당 식구였

던 막장 공전의 희생자 복당을 막는 것은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기현 직무대행께서는 조속히 의원총회를 열어 큰 마음으로 매듭을 풀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의지를 밝힌 조경태 의원·이준석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원내지도부를 향해 홍 의원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뉴시스

여야 원내대표, ‘총리 인준’ 협상 결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11일 또 다시 결렬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첫 회동에 이어 오후에는 의장 배석 없이 두 번째 회동을 가졌다.
앞서 오전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인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청와대가 임·노·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채

택해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직후 열린 두 번째 회동에서도 여야는 합의점 마련에 실패했다. 임·노·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 전에는 총리 인준은 불가하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총리 인준을 먼저 하고 이후에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를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두 원내대표께서 앞서 말한 부분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하지만 추후에 또 뵙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논의해 나가자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송영길, 재선 의원 만나 “국민 공감대 받는 변화 방향 합의”

“국민 지지 받을 수 있는 법안 숙성도 높여서 챙겨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재선 의원들을 만나 재보궐선거 이후 당 운영에 관한 당내 의견 수렴을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재선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재선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내는 법안 하나하나가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내기만 하면 뉴스가 된다. 집권당이기에”이라며 “법안도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숙성도를 높여서 세밀하게 챙겨서 해야하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이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에게 개혁 등 속도조절을 예뉘려 주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리·장관 후보자 인준 정국, 상임위 배분, 당청관계, 대선 경선 연기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이 제시됐다.
어기구 의원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장관 후보자 거취와 관련해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의원들 간에 의견이 다 다르지 않나. 합의

돼서 이렇게 가야 한다 결론 지은 건 없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그것도 의견이 나뉜 부분이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좀 더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서 민심의 귀를 더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청관계에 대해서는 송 대표가 주로 의견을 말했다고 한다. 어 의원은 “대선 공약도 당 중심으로 만들고 대의원을 통해 집행을 하고 이렇게 당 주도로 갈 필요가 있다. 청와대 끌려다니고 이런 것은 좋은 것 아니지 않

느냐”라며 “맞는 말씀”이라고 했다.
야당에 법사위원장을 주자는 일각의 주장에는 “그런 얘기도 당에서 지금 논의가 있다. 7개 상임위 문제도 있고 의원들 의견이 아주 다양하다”며 “지도부가 이제 잘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그 얘기도 일부 나왔다”며 “다 당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재선 그룹이 야당 때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좀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많았다”며 “또 대선을 앞두고 선거 패배 이후 지역 민심을 직접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